

<단군신화>에 대한 현대 독자의 수용 양상과 특성*

황혜진**

<차 례>

- I. 서론
- II. <단군신화> 수용의 양상
- III. 수용 특성에 대한 분석
- IV. 결론 : 요약과 제언

I. 서론

이 연구는 현대 독자가 <단군신화>를 어떻게 인식·수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단군신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화로 오늘날 한민족에게 이데올로기적, 실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남한에서는 개천절 기념을 비롯해 마니산 채화 등의 상징 의례를 통해, 북한에서도 단군릉을 개건하고 성역화함으로써 국민적 단합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단군신화는 여전히 집단적 상징으로서 문화적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로 오랜 기간 동안 단군 서사는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료로 그 역할을 해왔다. 주지하듯, 고려 말, 대몽항쟁기에 단군신화가 비로소 기록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 건국대학교

되기 시작했으며, 조선 창립기에는 단군이 세운 나라 이름을 따라 국호를 지으면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표방하였다. 애국계몽기에는 신분제의 와해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이라는 사회 변동 속에서 단군신화는 민족주의 운동의 상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¹⁾

단군신화가 오랜 세월 수용되면서 여러 시대적 국면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유구함 자체가 현재적 유효성을 증명하진 않는다. 오히려 현재 다문화적 정책과 교육이 실행되면서 ‘단군의 자손’이라는 식의 단일 혈통에 대한 강조는 기피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단군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도 하며, 특정 종교 집단은 우상이라는 배타적 관점으로 단군을 배척하기도 한다.

단군신화는 마치 현재 한국사회의 혼란상을 반영하듯, 대표적인 민족적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편, 회의와 의구심을 자아내며 심지어는 냉소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 자체를 단군신화 연구의 출발점으로 여긴다. 단군신화가 현대 한국 사회의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곧 단군신화의 현대적 존재 양상이기 때문이다. 단군신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사를 검토해 볼 때, 특정 역사 시기의 저작이나 정책 등과 관련된 시대적인 단군 인식에 대한 수용사적인 연구는 풍부하지만 현대인들의 단군 수용에 대한 논의가 그리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이 연구는

1)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인식의 변천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노태돈의 정리(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사실과 상징의 변주곡」,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20~33면) 참조.

2) 단군과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 수용되었는지 변화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로 대별된다. 전자에 속한 연구는 다시 입장에 따라 넷으로 나뉘는데, 첫째, 역사적 접근으로 단군을 실재했던 존재라 여기며 그 역사성을 입증하려는 입장, 둘째, 신화적 접근으로 단군이 가지는 상징을 신화적 맥락에서 그 의미 체계를 해명하려는 입장, 셋째, 사상적 접근으로 한민족의 근원성과 사상 원류를 탐구하려는 입장, 넷째, 종교적 접근으로 민족의 국조로 숭앙되는 단군의 신이성을 검증하려는 입장 등이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단군과 단군신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한 것으로, 한국인들이 단군을 어떻게 이해해 왔고, 단군신화에 대해 어떤 의미

2010년대 현대 독자들이 단군신화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여 우리 시대 단군신화의 존재 양상을 드러내려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단군신화를 해석하는 ‘우리’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단군신화는 오랜 역사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식’을 만들어왔다. ‘나’는 자기 외부의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면서 자기를 구성, 재구성하는 ‘해석적 정체성’³⁾을 지닌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대한 정체성도 개체의 자기정체성에 갈마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체성을 꺼내어 볼 수는 없는 것이기에 본고는 단군신화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글을 분석하여 이를 파악하려 한다.

이 연구의 자료는, 단군신화를 읽고 ‘단군신화와 나’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쓴 학생의 글이다.⁴⁾ 이러한 주제는 단군신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해석이 아니라 ‘나’라는 수용 주체의 주관성을 최대한 드러내는 한편

를 부여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 내용이 시대적 상황이나 민족적 과제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에 주목하는 단군인식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 대표적인 연구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 앞의 책 ; 서영대, 「전통시대의 단군 인식」,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 서영대,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중교」, 『한국사연구(114)』, 한국사연구회, 2001 ; 김일권, 「단군론의 역사적 변천 연구—조선 중기~일제 시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논문, 1995 ; 박광용,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조선시대」,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최병현,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고려시대 단군신화 전승문헌의 검토」,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정영훈, 「단군의 민족주의적 의미」,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등이 있다.

- 3) ‘해석적 정체성’이란 말은, ‘나’와 ‘너’와 ‘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을 가지며, 항상 문화적이며 상징적인 매개를 통해 이해되는 ‘공유된 자기로서의 정체성(identité comme soi)’을 염두에 두고 쓴 용어이다(폴 리퍼트, 김동윤 역, 『서술적 정체성』, 석경정 외 편,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숲, 1997.). 텍스트의 해석이 곧 자기의 구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해석적 정체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실화를 통한 자기 성찰의 사례 연구」, 『국어교육(122)』, 한국어교육학회, 2007, 562~563면 참조.

- 4) 이 연구에서는 교양 수업인 ‘현대인의 삶과 고전’(2011년도 1학기) 및 전공 수업인 ‘한문학의 세계’(2011년도 2학기)라는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를 번역본(일연, 김원중 역, 『삼국유사』, 민음사, 2007)으로 읽고 쓴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전공은 대부분 국어국문학이며, 대상 학년은 1, 2학년이 대부분으로 연령대는 19세에서 22세 정도이다.

단군신화를 통해 해석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 추론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독자들이 어떤 관심으로 단군신화를 보며, 자기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 자료를 제공한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현대 한국 독자 전체를 대표하긴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시기 고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로서 단군신화에 공통적인 교육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교육 경험은 공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단군신화에 대한 이해가 비록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단군신화에 대한 현재적 수용의 추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 수용자들이 공교육을 받은 기간인 7차 교육과정기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단군신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18종 문학교과서에서 상고시대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으로 단군신화를 집중적으로 배웠다. 그러므로 이들이 단군신화에 대한 교육 경험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어떤 가치를 내면화하는가 점검하는 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로서도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II. <단군신화> 수용의 양상

‘<단군신화>의 수용’이란 곧 단군신화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수용자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대표적인 저작물이나 사회 운동,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 단군신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검토하는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현대 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수용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징 작용’을 탐구하는 까닭이다.

단군신화는 오랜 역사 시기를 거치면서 그 수용자의 마음속에서 ‘상징 작용’을 추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단군신화라는 상징을 경험의 대상으로 삼아 그 구성 요소들을 바탕으로 여러 의미

를 이끌어내는 상징 작용에 참여해 온 것이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 곰과 혼인해 낳은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의 단군신화는 역사적 현실 및 집단적 경험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반영한 상징이기에 그 의미 작용이 더욱 풍부하다.⁶⁾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주제는 ‘단군신화와 나’이다. 이로 인해 단군신화를 통해 구성된, 혹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나’의 자기정체성이 표현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자료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 양상을 기술함에 있어, 단군신화라는 상징적 해석 대상을 매개로 하는 상징 작용을 통해 표현된 ‘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1. 민족적 이념에 대한 관심⁷⁾

1) 단군의 자손인 나

공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수용자들에게 단군신화는 민족

-
- 5) 상징 작용이란 상징에서 의미로의 변이를 일으키는 작용을 말한다. 화이트헤드는 상징 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인간의 마음은, 그 경험의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관한 의식, 믿음, 정서 및 용도 등을 이끌어 낼 경우에 상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화이트헤드, 정연홍 역, 『상징 작용—그 의미와 효과』, 서광사, 1989, 18면.)이라면서, 경험의 대상이 상징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작용이 상징 작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6) 조동일은 이 신화의 상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단수라는 생명의 나무와 죽음을 경험하는 굴이 상하에 배치되어 대조를 이루면서, 천신족과 지신족이 결합해 새로운 시대를 연 과정의 상징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2007, 70면.
- 7) ‘관심’이라는 용어는 하버마스의 ‘관심(Interesse)’이라는 용어를 원용한 것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식은 삶에 대한 관심에 의해 이끌려진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인식론의 핵심 용어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는 관심이란, 엄밀히 말하면 ‘인식적 관심(Erkennntnisinteresse)’ 혹은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erkennntnisleitende Interesse)’이다. (이구슬, 「전통과 비판—가다머와 하버마스의 해석학 논쟁」, 서울대 박사 논문, 1994.) 하버마스는 인식적 관심을 기술적, 실천적, 해방적 관심으로 분류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자기정체성의 인식 및 구성에 관여하는 관심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의 기원에 대한 신화로서 핏줄과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혈연 중심 민족주의의 원천이다. 현대 수용자들 중에서 ‘단군의 자손’임을 스스로 믿고 있는 이들은 혈연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존재임을 단군신화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러한 수용자들이 단군신화와 자기와의 관계를 서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군으로 인해 내가, 우리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다.⁸⁾[1-1-1]⁹⁾
- 신화 속에서의 우리 민족은 대단히 비범한 존재이며 신성한 존재이고 나 또한 그렇다.[1-1-2]
- 나는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되어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한반도의 한민족이다. 고로 나는 단군왕검의 신화에 따르면 환웅과 웅녀의 후손인 것이다.[1-1-3]

2) 유서 깊은 민족의 성원인 나

단군신화를 통해 혈연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적 이상을 확인하며 그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짓는 경우도 있다. 수용자들이 단군신화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문화적 이상은 ‘유구한 역사가 증명하는 강인한 민족성’, ‘홍익인간의 이념’ 등이 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는 정인보가 작사한 개천절 노래의 가사처럼 유서 깊은 민족임에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자체가 민족적 저력을 표상한다고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나는 ‘우리 민족처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은 없다’라는 말을 역

8) 핵심어가 들어 있으며, 글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분량의 제약 때문에 내용과 표현이 상당 부분 중복되면 좀 더 정제된 자료를 인용하며,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표현의 차이가 해당 내용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경우도 기술하였다. 주제문만으로 핵심적인 내용의 전달이 어려운 경우 앞뒤 문장을 이어 다소 길게 인용하였다.

9) 첫 번째 항, 첫 번째 목, 첫 번째 자료라는 의미에서 [1-1-1]이라고 자료 번호를 붙였다. 이하의 자료 번호도 동일한 방식이다. 단, 내용과 표현이 중복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1’이라는 방식으로 더해지는 자료 수를 부기하도록 한다.

사를 공부하면서 자주 들었다. (...) 우리 민족은 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다.[1-2-1]

- 이 땅에 최초의 나라를 세운 인물을 우리의 뿌리에 뚫으로써, 그 깊고 단단한 뿌리를 가졌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풍파를 이겨내며 또 다른 초인의 등장을 염원할 수 있는 것이다.[1-2-2]

3)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나

환웅의 정치적 포부였던 홍익인간(弘益人間)은 근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정치적, 교육적 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¹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홍익인간이 근대적인 가치인 정의, 평등, 복지, 평화 등과 결합될 수 있는 의미 요소를 내함하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은 이러한 지향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롭게 다가가는”,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유대감”, “내 이웃과 가족과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실천적 가치로 내면화하고 있었다.

- 단군이 내세운 홍익인간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아도 충분히 숭상하고 돌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1-3-1]
- 환웅은 어떻게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롭게 다가갈게끔 정치를 해 보려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의도를 가진 이였다.[1-3-2]
-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은 나의 이상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 나는 우리나라만이라도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유대감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배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1-3-3]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나의 이상과 가깝다. (...)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이웃과 가족과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도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1-3-4]

10) 미군정 시기 제정된 교육법에서부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며,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홍익인간의 이념이 표방되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교육의 목표로 남아 있다.

2. 인격적 미덕에 대한 관심

1) 꿈의 미덕을 배우려는 나

동굴 속에서 시련을 이겨낸 꿈의 미덕을 가치 덕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자들도 많았다. 이들은 꿈과 관련된 일화에서 투철한 목표 의식, 자율성, 시련 극복과 자기 개선 의지, 금욕적 의지, 시련을 통한 소망 성취의 의의 등에 주목하여 교훈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꿈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시련을 견디는 일화는 단군신화의 서사 내용 중 수용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 결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인간이 되고자, 인간으로 살고자 한 꿈의 모습에서 다소 미련하다는 인상과는 달리 투철한 목표 성취의식을 느낄 수가 있었다.[2-1-1]
- 꿈이 인간이 되겠다고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직접 선택하는 자율성을 갖췄으면 좋겠다.[2-1-2]
- 웅녀는 시련을 겪고 스스로 인간이 된 가치 존경할 만한 사람[2-1-3]
- 꿈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환웅에게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변하게 된다. 꿈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쳐낸 모습이 ‘웅녀’인 것이다.[2-1-4]
- 빛도 없는 동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휘둘리지 않는 것, 맵고 쓴 마늘과 쑥, 즉 먹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 그것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2-1-5]+1
- 꿈은 결국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이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가르침을 선사하는 것 같다.[2-1-6]

2) 호랑이 같음을 반성하는 나

꿈과는 달리 동굴에서 뛰쳐나간 호랑이의 끈기 없음에서 자신의 모습

을 발견한 글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대상 수용자들은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청년기라는 연령대의 특성상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아 동굴 속 생활을 섭생과 관련짓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환기하며 곰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호랑이 같이 중간에 포기했던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였다.

- 내 자신과 더 어울리는 건 아마도 쭉과 마늘을 끝까지 먹지 못하고 포기한 범이 아닐까 싶다. 중간에 포기한 적이 너무 많아서 사례 쓰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래도 ‘다이어트 포기’가 제일이지 않을까 싶다.[2-2-1]+3
- 범의 행동에서 작년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서 재수라는 선택을 하였지만, 9개월이라는 수험기간 동안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중간에 흐트러졌기 때문이다.[2-2-2]+2
- 솔직히 나는 곰보다는 범에 가까운 스타일이다. 머릿속으로는 목표를 터무니없이 높이 잡아놓고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작심삼일의 전형이다.[2-2-3]+2

3. 신화에 대한 역사적 관심

1) 신화를 통해 역사를 아는 나

민족적 이념이나 인격적 미덕은 대상의 속성이자 주관적으로 가치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내면에서 소중히 여기게 된 가치들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흥미를 중심으로 단군신화를 수용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고대인이 그들의 논리로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한 텍스트로 단군신화를 보면, 단군신화는 역사에 대한 앎을 넓히거나 세련시키기 위한 자료가 된다.

- 나에게 이것(단군신화)은 하나의 사료로 다가오며 이 사료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황, 생활 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특히 고조선

에 관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 전공자에게 단군신화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3-1-1]

- 신화라는 것은 물론 비현실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징들은 분명 당시의 생활과 구조, 성립과정들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군신화 역시 이와 같은 상징체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토데미즘이다.[3-1-2]
- 국사교과서 앞부분에 단군신화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읽다보니 흥미로웠다. 풍백, 우사, 운사 등을 이끌고 내려온 것은 그 당시 사회가 농경사회로 날씨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고, 한반도에 살던 부족들이 곰과 호랑이를 믿었다는 것, 곰이 호랑이 부족을 이겼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했다.[3-1-3]
- 이미 같은 굴에 살고 있었던 곰과 범은 한 마을 내에 살고 있던 두 부류의 공동체를 상징화했다고 생각한다. 신이 내린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고 그것을 버터낸 공동체가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3-1-4]

2) 신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나

공동체의 기원에 대한 역사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이야기로 변형한 단군신화를 통해 고대의 사회상이나 생활사, 사유 구조 등을 파악하려는 인식적인 관심과 달리, 신화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경우도 많았는데 이 역시 자기보다는 대상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용자들은 부족에서 민족으로 전승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지적하거나, 지배를 합리화하는 권력자들의 통치 전략일 뿐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 신화적 체계로 판단할 때 단군신화는 여러모로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엄밀한 의미에서 창세신화도 아니고 건국신화도 아닌 ‘한민족’이라는 기초 아래 끼워 맞춰 놓은 부족신화로 비추어지기 때문이다.[3-2-1]
- 아마도 그 시절 왕은 백성들이 자신을 좀더 우월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바라고 이런 신화를 만들었을 것이다.[3-2-2]
- 단군신화가 대한민국에 편협한 민족주의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아닌지,

단군신화부터 조선왕조실록까지 역사가 너무 승리자들 위주로 미화된 것은 아닌지.[3-2-3]

- 단군의 실제적인 업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그가 소위 좋은 혈통, 좋은 조건이라는 점만으로 그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3-2-4]

4. 신화에 대한 서사적 관심

1) 작중인물의 감정에 반응하는 나

초경험적이고 신성한 내용 요소를 지닌 단군신화를 단지 서사적 흥미의 대상으로만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줄거리보다는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 자료가 많았다. 환웅의 좌절과 야심, 곰의 간절함, 단군의 인간적 감정과 부담감 등 신화 속 인물에 감응하면서 수용자들은 “수천년 전 감정이 전해져” 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며, 신성한 주인공인 단군도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하였다.

- 환웅은 아파 신의 세계라는 곳이 무료하고 지겨웠던 게 아닐까. 또 서자인 탓으로 실질적 일인자가 되지 못해, 그 세계에 뜻을 두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4-1-1]
- “환웅님, 범은 지금 마늘과 쭈뼛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을걸요, 저는 탈라요, 저는 100일도 아니고 삼칠일만에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절 가져요” 선택을 바라는 곰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가.[4-1-2]
- 수천년 전 감정이 전해져 온다. ... 이 당시에도 현대와 같은 감정이 녹아있다는 것은 경이롭게 생각한다. ... 결국 결심하고 도망치고 수호하던 단군은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4-1-3]
- 날 때부터 양 어깨에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졌을 단군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대신 아무런 책임도 없는 내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워 보이기도 한다. 말년에도 산신이 되어 세상을 보살펴야 했으니, 그의 삶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편하고 재미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4-1-4]

5. 개인적 전유에 대한 관심

1) 경험 이해의 틀을 구하는 나

수용자들은 자기 경험을 해명할 수 있는 틀을 단군신화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서사는 인간의 경험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서 경험을 이해하는 정신적 형식을 제공한다. 이런 서사의 속성을 바탕으로 수용자들은 단군신화의 서사 내용을 경험 이해의 틀로써 활용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사적이거나 사회적인 경험을 투영하여 단군신화를 보고 자기 경험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전유(appropriation)의 사례들은 자기 경험을 기획하거나, 사회적 경험의 구조를 신화를 통해 재확인하는 경우로 대별될 수 있다.

- 단군 신화와 나를 ‘비약’이라는 키워드로 엮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마리가 아직 잡히지는 않지만 신화를 곱씹어 보면서 그 실마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5-1-1]+1
- 대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견뎌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그만 두고 싶은 충동 때문에 쑥과 마늘을 삼켰다 뱉는 인생을 반복해 왔었다.[5-1-2]+1
-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은 현대인의 발버둥일 뿐이지만, 누군가 내게 쑥과 마늘을 주며 먹기를 권한다면 그 시간이 일 년이 넘는다 해도 그것을 실천해 보고 싶은 마음이다.[5-1-3]+1
- 우리나라의 시조라 일컫는 단군이라는 존재마저도 그의 힘,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 ... 스스로의 힘으로, 오롯이 자신의 가진 것만으로 세상에 도전해 부딪쳐 보지 않고 배경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세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5-1-4]
- (범은) 한 마디로 도태되어 버린 것이다.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잊혀 버리는 세상,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거나 이끌어 주지 않는 사회, (...) 태초의 세상부터 이런 모습이었으니 오늘날 이 사회가 처절한 경쟁사회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닌가.[5-1-5]+2
- 단군신화가 보여주는 양상이 현대사회에서 경쟁에 물리는 우리가 시스템에 어떻게 복속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5-1-6]

2) 수용 태도를 성찰하는 나

신화를 수용하는 태도 변화를 성찰하는 매개로 단군신화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단군신화 자체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단군신화에 대해 아무 감흥이 없는 자기를 발견하거나, 감흥이 없어진 이유를 나름대로 추론하기도 하고, 단군신화를 처음 접했을 때의 신성함, 환상과 낭만, 감동 등의 감흥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현재의 우리 모습에서 어떻게 투영될까. 사실 막상 생각나는 것은 없다. 너무나 미약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5-2-1]
- 솔직한 심정으로 고등학교·대학교를 거치면서 단군신화에 대한 ‘분석’을 너무나도 많이 한 탓에 이제 신화가 신화로 다가오지 않음은 좀 씁쓸하다.[5-2-2]
- 어린 시절의 단군이야기는 새롭고 지적인 단군 이야기에게 마음껏 비웃음을 당했다.[5-2-3]
- 환상을 벗겨낸 자리는 마치 황량한 빈터의 낡은 그네 같다. 다시 돌아가 누우면 커다래진 내 몸뚱이만큼 뻗혀 보인다. 낭만이 없다.[5-2-4]

3) 새로운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는 나

개인적 전유의 또 다른 방식은 새로운 창작 소재로의 활용이다. 단군신화를 새로운 매체 기술과 접합시키거나 색다른 이야기로 변형하려는 수용 방식이다. 고전의 현대적 변용, 혹은 고전의 콘텐츠화에 대한 관심이 단군신화에도 적용되어 왕의 어머니가 된 웅녀의 후일담을 상상하거나 단군신화의 영웅서사 구조를 활용해 자기를 표현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단군을 등장시킨 드라마 <태왕사신기>(MBC, 2008)의 영향도 살필 수 있었다.

- 과연 단군이라는 위대한 왕을 키워낸 웅녀의 후일담은 어떠할지. 내가 직접 ‘웅녀’가 되어 후일담을 이어나가 보겠다.[5-3-2]

-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은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내었으나 박○호는 7살 때 이사 간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서울에 뜻을 두었다. 이에 박○호의 부는 네가 성적만 된다면야 어디든 못 보내 주겠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5-3-3]
- <태왕사신기>를 보면서 나도 단군신화라는 텍스트를 이용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5-3-1]

III. 수용 특성에 대한 분석

앞 장에서 단군신화 수용 양상을 기술한 데 이어 이 장에서는 단군신화 수용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장의 1)~5)의 항을 배열할 때 고려한 것은 단군신화라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주체의 주관적인 ‘온도’였다. 다시 말하면, 1)에서 5)로 갈수록 주체의 내면에서 비롯된 단군신화에 대한 정념(情念)보다는 이성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대상 자료가 그리 많지 않으나 다양한 수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된 관심	단군신화와 나의 관계	편수	비율(%)	
1) 민족적 이념에 대한 관심	① 단군의 자손인 나	3	4.7	14.1
	② 유서 깊은 민족의 성원인 나	2	3.1	
	③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나	4	6.3	
2) 인격적 미덕에 대한 관심	① 꿈의 미덕을 배우려는 나	7	10.9	26.5
	② 호랑이 같음을 반영하는 나	10	15.6	
3) 신화에 대한 역사적 관심	① 신화를 통해 역사를 이는 나	4	6.3	12.6
	② 신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나	4	6.3	
4) 신화에 대한 서사적 관심	① 인물의 감정에 반응하는 나	4	6.3	6.3
5) 개인적 전유에 대한 관심	① 경험 이해의 틀을 구하는 나	11	17.2	28.2
	② 수용 태도를 성찰하는 나	4	6.3	
	③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는 나	3	4.7	
6) 기타	외국인 및 일회적 내용의 자료 ¹¹⁾	8	12.5	12.5

위와 같은 양상에 대해 그 특징을 논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 착목하려 한다. 첫째, 수용 양상의 분포이다. 특히 단군신화는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단군신화와 의미 작용을 하는 현대의 독자들의 정체성 구성에 단군신화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둘째, 반응이 활발한 서사 내용을 중심으로 수용의 특징을 논하겠다. 분류 체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자료를 살폈을 때, 특정한 서사 내용에 대한 반응이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반응의 방식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셋째, 단군신화의 초현실적 내용에 대한 수용 태도이다. 단군신화는 그 신성성을 믿는 집단에겐 신화가 될 수 있다. 수용자들이 단군신화의 신성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단군신화가 여전히 신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²⁾

1. 단군민족주의의 약화

첫 번째 논의 내용은 수용 양상의 분포와 관련된다. 단군신화는 민족 정체성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취급되나 의외로 ‘민족적 이념에 대한 관심’으로 단군신화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검토한 64편의 자료 중 9편에 해당하는데 이는 14.1%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그에 비해 단군신화가 인격적인 미덕과 관련하여 읽히거나 인식과 비판을 위한 흥미로운 자료, 개인적인 효용을 구하는 전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73.6%)

단군신화를 민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의미 작용을 하고 있는 현대

11) 외국인의 경우, 그 수용 양상을 따로 살필 필요가 있기에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다른 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독창적인 수용의 경우에는 일반적 양상으로 볼 수 없기에 기타 항에 넣었다.

12) 양상의 특징을 기술하는 방식이 양상과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양상을 더 자세히 기술한다고 하여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에 검토한 자료와 분류된 양상을 바탕으로 다소 직관적인 착목점을 마련하였다.

독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단군신화의 사회적 위상이 예전보다 격하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단군신화를 대하는 수용자의 관심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족이나 국가, 분단을 극복한 통일된 민족국가가가 정신적·실제적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단군신화를 근거로 하는 ‘단군민족주의’¹³⁾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이를 집단의 상징으로 수용하는 것은 공동체 형성과 결속에 요긴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단군신화가 기록되기 시작한 고려 말, 단군신화는 삼국유민의식을 청산하고 동족의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¹⁴⁾ 애국계몽기에는 우리 민족이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여기게 하여 신분 차별 의식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는 저항의 구심이 되었다.

그러나 애국계몽기의 문화 운동으로 시작된 단군민족주의의 힘이 21세기 현재에도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회의적이다. 압도적인 외세의 충격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결속의 논리를 제공하였던 단군민족주의가 과연 세계화와 다문화 공존의 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이다.¹⁵⁾ 다음과 같은 지적은

13) ‘단군민족주의’는 한말 애국 계몽 운동기의 민족 단결을 위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종족적 연원을 단군에서 찾으려는 흐름”(신용하, 「신채호와 애국계몽사상(하)」, 『한국학보』, 1980, 110~111면.)을 칭하기 위해 신용하가 처음 사용한 이래, 그 외연이 확장되어, 단군을 민족 공동의 조상으로 간주하고 그 이름 밑에서 민족적 자기 확인과 결속을 도모하며, 그를 토대로 하여 민족의 자주 독립과 통일, 발전을 추구하는 의식·사상 또는 정치적·문화적 운동이란 의미로 쓰인다.(정영훈,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28-2)』, 한국정치학회, 1995, 34면.)

14) 노태돈은 <삼국사기>에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당시인들의 역사인식의 상한이 삼국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대몽항쟁 시기에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반영되었다고 하였다.(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22면.) 삼국유민의식, 즉 삼국별 분립적 계승의식을 청산하고 단군을 중심으로 신라, 고구려, 옥저, 부여, 예맥 등을 “단군의 자손(薈)”(<삼국유사>)라고 하거나, “삼한 70여 국의 군장들은 모두 단군의 후예”(〈제왕운기〉)라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삼국 부흥을 내세우며 삼국유민의식에 호소하는 일은 역사상 없었음을 상기할 때,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노태돈, 앞의 글, 23~24면)

오히려 단군민족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침략을 받고 식민지 통치를 당한 민족도 신화(3)을 만들어 대응의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 한국신화(3)이 그래서 생겼다. 이것은 부당하고 무력한 논리일 뿐만 아니라 자해를 초래하기까지 하므로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족 우월론을 인정하고 신성민족이 따로 있다고 하면, 신성민족은 열등민족을 짓밟아 마땅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¹⁵⁾

조동일은 민족의 우월감을 근거로 민족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민족주의가 신성민족과 열등민족의 차별과 일방적 착취 관계를 정당화하는 인종주의의 논리와 긴밀히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개발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수출 순위 세계 7위(2011년 12월 현재)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고, 한류문화의 세계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더욱 유효하다.

물론 단군신화가 특별한 민족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한국 교육의 이념이기도 한 홍익인간은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이상이 될 만한 계기를 품고 있다. 처음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이 될 때에도 인간다운 인간의 형성, 자유와 평등의 지향, 인류에 대한 공헌 등이 강조된 바 있다.¹⁷⁾ 일민주의를 제창한 안호상도 홍익인간 이념이 우리의 민족의

15) 물론 이는 현재의 국제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애국계몽기와 마찬가지로 외세가 압도적인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단군민족주의의 현실적 필요성을 역설할 가능성이 높다.

16) 조동일은 신화학을 셋으로 분류하여, 신화학(1)은 신화의 보편성을 증시하면서 신화에 대한 일반 이론 정립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으며, 신화학(2)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사실 그대로 밝히는 역사학 연구를 말한다. 신화학(3)은 자국 신화의 특수성을 주체의식 또는 우월감의 근거로 삼아 민족주의 정치의식을 선양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 신화(3)은 신화학(3)에 의해 생겨나고 전파된 신화를 말한다. (조동일, 『세계 속의 한국신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말한다』, 지식산업사, 2008, 84~85면.)

17)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인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민족이 간직하여 이어 내려온 민족적 신념이자 이상이다. 둘째, 홍익인간의 뜻은 우선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서 인간 형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일치한다. 셋째, 자신해 내려온 환웅, 자

얼일 뿐 아니라, “사람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인류의 보편적 일”¹⁸⁾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아무리 인본주의, 자유와 평등, 인류 공영 등의 세계 시민적 가치들이 보편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해도 민족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결합하는 방식은 한 민족의 특수한 문화적 전통을 특권화한다는 점에서 패권적이고, 끊임없이 확인·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세계관적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된다.¹⁹⁾ 그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특수한 문화라도 보편성을 구성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증 과정 없이 “나라마다 가져야 하며,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절대적 보편타당성”²⁰⁾을 가졌다는 식으로 특수한 문화적 전통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보편화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식적으로는 단군민족주의가 선양되는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단군민족주의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던 현실도 단군민족주의의 약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²¹⁾ 또한, 하나의 조상, 하나의 조국, 하나

기 의지로 시련을 겪은 곰처럼 자유를 사랑하며, 하늘나라와 지상나라를 대등하게 여기는 한편 신과 인간, 동물을 똑같이 여기는 평등을 지향한다. 넷째, 교육은 교육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짐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세계 이상에도 부합한다.(손민수, 『한국교육사(1)』, 문음사, 1987, 81~82면 참조)

18) 안호상, 『나라역사 육천년』, 한뿌리, 2006, 56~57면.

19) 이병수, 「문화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본 안호상과 박종홍의 철학」, 『시대와 철학(4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168면.

20) 안호상, 앞의 책, 57면.

21) 정영훈은 단군민족주의를 약화시킨 한국사의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었다. 첫째, 일제강점기에 민족의식과 자주독립의지를 가지고 항일 투쟁에 선두에서 싸워왔던 세력들이 해방 후 몰락하였다는 점, 둘째, 냉전시대, 민족의 일부를 적대하고 배척해야 했던 냉전시대에는 민족적 단결과 화합을 추구하는 단군민족주의의 퇴장이 강요되었다는 점, 셋째, 정신문화적 대외 종속[서구종주주의]이 심화되면서 단군민족주의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점, 넷째, 이기주의, 배금주의 등 반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확산으로 이타, 봉공, 민족의 윤리와 연관되는 단군민족주의가 힘을 잃고 있다는 점 등이다. 정영훈,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앞의 글, 49~50면 참조.

의 운명, 하나의 지도자로 이어지는 일민주주의의 파시즘 논리나,²²⁾ 초기 민족주의 사학의 반제(反帝)를 반공(反共)으로 잇고, 실증성보다는 감정적인 면을 강하게 표출하는 민족주의 사학이 1980년대 집권 세력에 의해 지원 되어 극우 반공의 국가주의적 논리로 기능한 점²³⁾도 단군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연구 결과에 나타난 수용 양상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현대 독자들이 단군신화를 통해 민족적 이념을 확인하거나 내면화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자료를 제공한 이들이 비록 특수한 집단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국가적 상징이자 상징 의례의 원천이 되고 있는 단군신화를 많은 이들이 집단적 가치를 표상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단군민족주의가 약화된 배경을 주로 논리적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인종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논리적 위험성이 있으며, 검증이나 재구성 과정을 허여하지 않고 특수한 전통을 보편적 원리로 확장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무리 민족주의적 가치가 ‘가슴을 뜨겁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권력의 재생산과 국민 동원에 이용되어 온 역사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단군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본다고 하여서 집단적 상징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한 방식으로 국가의 목적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상징을 보급하며, 사회의 조직화는 확산된 상징에 많은 부분 의존한다고 한다.²⁴⁾ 다음과 같은 그의 지적은 우리가 집단적 상징을 무시했을 때 어떤 혹독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지 잘 보여준다.

22) 다음과 같은 설명은 하나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일민주주의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민족의 자유와 독립은 온 민족의 쇄돌 같은 단결로써며, 이것은 다시 항상 세 동포 세 백성끼리 철저히 엄격한 명령의 복종으로써만 된다.” 안호상, 『일민주주의의 본바탕』, 1950, 36면, 노태돈, 앞의 글, 35면 재인용.

23) 노태돈, 「해방 후 민족주의 사학론의 전개」, 『현대 한국 사학과 사관』, 일조각, 1991.

24)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앞의 책, 74~75면 참조.

자기들의 상징에 대한 존경심과 그 개정의 자유를 겸비하지 못하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부정부 상태 때문이든 아니면 무익한 환영에 의해 질식된 생명의 완만한 쇠퇴 때문이든 간에, 이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붕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⁵⁾

단군민족주의가 약화되는 현상은 이 연구의 자료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단지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추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화이트헤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단군민족주의를 내면화하기 위한 상징으로 단군신화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군신화 자체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보여준 다양한 수용의 편폭만큼 ‘개정의 자유’를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단군민족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재생하는 것은 단군신화에 대한 존경심마저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꿈과 호랑이 관련 내용에 대한 흥미

수용자들이 단군신화와 자기를 연결 지을 때 가장 많이 매개로 삼은 것은 꿈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시련을 견디는 대목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꿈의 미덕을 배우려 하거나 호랑이 같은 충동성과 인내심 없음 등을 반성하려는 수용이 다수 확인되었다(26.5%). 또한, 신화를 역사적 사실의 변형태로 보면서 신화를 통해 역사적 앎을 확장, 세련시키려는 수용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된 부분도 이 대목이었다. 그리고 신화에 대한 서사적 관심을 적용하여 꿈이나 호랑이에 대해서 공감하는 경우나 꿈과 호랑이의 관계를 경쟁 관계로 파악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틀로 삼는 전유의 양상도 상당수 있었다.

동굴 속의 꿈과 호랑이에 대해서 최남선은, ‘동혈이거(同穴而居)’하는

25)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앞의 책, 84면.

‘일웅일호(一熊一虎)’가 쑥과 마늘의 주술적인 힘[呪力]으로 화(化)하여 사람이 되는 일절(一節)이야말로 민속학적으로 가장 흥미 있다고 하면서, 북방 민족 사이에 보편적이었던 주력신앙(呪力信仰)적 설화소로 ‘기백일(忌百日)’이라는 금기와 함께 민속적 색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고 평했다.²⁶⁾ 1992년에 단군신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최운식도 설문 대상인 초중고 학생들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부분을 가장 재미 있게 생각”²⁷⁾했다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최남선이 언급한 바대로 동굴 속의 곰과 호랑이에 관한 내용은 고대인들의 생활사나 의식 세계를 알려주는 역사적 코드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신화를 통해 역사를 아는 나’ 항목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단군신화를 역사적 자료로 보는 관점은 교육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곰과 호랑이, 환웅 등이 관계 맺는 내용은 씨족간 연맹을 기초로 확장된 공동체를 성립하는 역사적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역사적 흥미의 대상이 된다.²⁸⁾

곰과 호랑이가 시련을 겪고 변신을 하는 내용이 수용자의 흥미를 끄는 까닭은 풍부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일종의 ‘문화적 상징’에 해당한다. 문화적 상징이란, 심리의 무의식적 내용들로부터 직접 파생한 자연적 상징과 달리, 많은 변형과 의식적인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집단 이미지가 된 것을 말한다.²⁹⁾

26) 최남선, 「민속학상으로 보는 단군왕검」,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편, 『육당 최남선 전집 (2)』, 현암사, 1973, 338~339면.

27) 최운식, 「단군신화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 『국어교육(79·80)』, 한국어교육학회, 1992, 376면.

28)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러한 상징에 대한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인간 만사와 모든 자연현상을 수호신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고대인들이 살던 곳에는 곰토텐족과 범토텐족이 있었는데, 하느님을 수호신으로 모신 환웅족과 곰을 수호신으로 모신 곰족의 결합을 통해 마을연맹체사회를 만들었다. 범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하니 중심 세력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사회에서 종교는 하느님을 최고신으로 하고 그 밑에 곰신, 범신 등 여러 신들이 있었을 것이다.”(윤내현, 「고조선의 종교와 사회 성격」, 단군학회 편, 『단군과 고조선 연구』, 지식산업사, 2006, 42~43면 참조)

국가의 기원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시작된 이야기가 구전되며 다양한 변형을 겪다가 문헌에 정착되고 그것이 전승, 확산되어 수천년 뒤 독자에게도 흥미롭게 여겨진다는 점에서 단군신화는 실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상징이 될 만하며, 곰과 호랑이에 대한 내용은 그 중 가장 상징성이 짙다 하겠다. “길보기에는 황당무계한 것 같은 이야기가 수천년을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다는 것은, 분명 그럴 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³⁰⁾라면서 단군신화의 가치를 설파했던 장덕순도 이러한 상징성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런데 오랜 역사적 경험을 상징성이 풍부한 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단군신화에서 수용자들은 곰과 호랑이의 시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응하였으나 그 성격은 문화적 상징에 대한 반응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인격적인 미덕을 찾거나 자신의 결함을 반성하는 것은 신화적 상징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세계의 매력에 빠져드는 방식은 아니다. 또한 신화 속 존재물들과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상과 동일시하는 ‘신비한 참여’³¹⁾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 이해를 투영한 자기중심적인 것일 뿐이다.

더욱이, 자신의 경험 이해의 틀로 단군신화를 전유한다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세계 인식의 재생산이자 신화적 텍스트로 자기를 확장하는 것일 뿐 새로운 해석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기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이들이 보여주는 경험 이해의 틀은 문제적인 것이긴 하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쟁에서 패한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 경쟁 체제 자체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불만 등

29) 칼 구스타프 융, 정영목 역, 『무의식 연구』, 칼 구스타프 융 편, 정영목 역, 『사람과 상징』, 까치, 1995, 103~104면.

30) 장덕순의 말, 정병욱·이어령,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19면.

31) 신비한 참여에 대해 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시인들은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숲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숲의 영혼은 야생동물이나 나무로 구체화되어 있고, 사람 개개인은 그런 동물이나 나무와 심리적 동일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 한 개인이 어떤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그러한 무의식적인 동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심리적 사실이다.” (칼 구스타프 융, 앞의 책, 21면.)

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처 입은 ‘자기서사’를 보여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³²⁾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인데 하늘과 땅이 결혼하여 만물을 낳는다는 창조신화의 원형 (...) 인간은 남녀의 성적 결합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 경험함이 보다 넓은 외계와 접촉하는 자연의 경험과 합쳐질 때 바로 그러한 신화체계가 생겨납니다.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만약 하늘에서 햇빛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이 트지 않지요. 식물이 태어나 자란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성적 교섭으로 본 것이지요.³³⁾

환웅이 내려온 장소가 삼위태백이라는 산의 신단수 아래로 되어 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산과 나무가 등장하고 있지요. 산은 땅에서 높이 솟아 하늘과 맞닿은 장소이고 나무 역시 수직적 자세로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갑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수평자세이지만 수목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면서도 그 가지는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그러므로 수목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구실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단수는 하늘과 땅(곰)의 결합에서 생겨난 단군의 예시적 이미지로 볼 수 있어요.³⁴⁾

이어령은 환웅과 곰의 결합 및 신단수의 상징을 위와 같이 읽어내었다. 물론 이는 신화학적인 설명이나 이를 길게 인용한 까닭은, 곰에게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미덕을 발견하거나 호랑이처럼 다이어트에 실패

32) 다음과 같은 자료는 단군신화를 현대 사회의 모습으로 읽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군 신화가 보여주는 양상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시스템에 어떻게 복속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곰과 호랑이는 이른 바 지금으로 치면 지원자이다. 사회가 던져주는 풍파를 딛고 경쟁을 해야 하는 사이인 것이다. 호랑이는 그 경쟁에서 밀려나 버린 소위 말하는 루저(loser), 패배자이다. 분명 곰은 성공하였고 그에 따라서 인간이 되었지만 여기서 웅녀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환웅과 결혼을 하고 단군을 낳은 뒤에 신화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나와서 인간이 되었지만 환인, 환웅이 만든 시스템에서 복속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인간이 되고 주체적인 삶을 꿈꾸지만 어딘가 흡수되어버린 그의 모습은 마치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5-1-6]

33) 이어령의 말, 정병욱 · 이어령 저, 앞의 책, 19면.

34) 이어령의 말, 정병욱 · 이어령 저, 앞의 책, 20면.

한 자기를 반성한다는 식의 자기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마치 굴속에 있는 것 같았다는 경험의 이해, 고평과 호랑이의 동굴 속 동거에서 경쟁 사회의 현실을 재확인하는 등의 수용과 거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곰과 호랑이, 신과 관련된 초현실적 요소를 제거하고 단지 인간적인 눈높이에서 그 미덕을 구하거나 인물에 보편적 감정을 느끼며, 자기의 경험을 환기하거나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단군신화가 단지 재미있게 구성된 이야기로 수용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교훈을 찾고 공감하며 자기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기실 다른 양식의 서사물에서도 가능하다. 오히려 이런 활동을 위해서라면 후대에 만들어진 세련된 서사물이 교육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단군신화를 신화적 상징으로 여기지 않고, 이야기적 흥미로 대하게 되면, 외국인이 단군신화를 읽어내는 방식과 다르지 않게 된다. 신화의 전승 단위는 민족이기에 우리 민족의 신화는 다른 민족에게 신화가 아니다. 다음은 같이 수업을 들은 중국 국적의 수강생이 제출한 ‘단군신화와 나’라는 주제의 글인데 한국어 표현은 미숙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단군신화에 대한 인식과 한국 학생의 그것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다.

- ①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당시 왜 이런 신화들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 세상의 인간들을 지배하려면 신화적이어야 하며, 인간들보다 무언가 달라야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 못하는 일들 많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인 더욱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런 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다. [와-1]
- ② ‘단군신화’나 우리 중국이 ‘요 임금 건국신화’는 다 건국신화다. 그런데 건국 신화가 있는 필요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다. (...) 이런 신화는 진실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국신화를 만들었다고 여기고, 나라와 민족이 위협에 처할 때 민중의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신화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와-2]
- ③ 개인적으로 이러한 단군신화는 나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화가 이렇다면 우리의 조상, 즉 어머니는 곰이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해서 설득력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벌과 곰이 시합을 했을 때 곰, 인내성이 강한 것은 선천적으로 봤을 때에도 곰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겨울에 동굴에서 잔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나오는데 뒤로 이어서 읽지 않아도 곰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3]

- ④ 단군의 어머니인 웅녀는 천신만고 끝에 곰의 몸을 삼가자 여자가 되는 것도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와-4]
- ⑤ 무위와 유위한 사람의 가장 차이는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고난을 받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다. 현대인으로서 우리도 스스로 단군처럼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고 마음을 넓히고 참고 열심히 해야 한다. [와-5]

그렇지만 다수의 수용자들이 곰과 호랑이 관련 내용에 흥미를 가지는 현상 자체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문화적 상징에 무의식적 동일성을 느끼는 ‘신비한 참여’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을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힘겨워할지라도 단군신화 중 가장 상징성이 풍부한 이미지를 자기와 관련을 지으려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상력이 빈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상징의 본성은 ‘끊임없는 연상’에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감지 능력이 허용하는 만큼 상징을 볼 수 있다. “상징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그 심원한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다.”³⁵⁾는 말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군신화를 두고 자유로운 연상을 할 수 없다. 안전을 보장 받고 문명 속에 웅크리고 있는 현대인은 단군신화에 존재하는 자연물에 대해 생생한 감각적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³⁶⁾

한편, 우리가 상징적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나 가르치는 방식에도 문제

35) 슈발리에 게어브란트, 『상징 사전』, 조르주 장, 『기호의 언어』, 김형진 역, 시공사, 2010, 174면 재인용.

36) 예를 들면, 우리는 곰을 동물원에서만 보았을 뿐 자연스러운 생활환경에서 곰을 대하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한 겨울을 동굴에서 이겨내고 새끼들마저 동반하고 나타나는 곰에 대한 경이로움을 현대인이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있어 보인다. 상징적 텍스트를 대할 때, 우리는 삶에서 얻어진 감각적 경험이란 자원을 바탕으로 상징의 세계를 온몸으로 살아보며 상징에 대한 실감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상징의 의미를 추상화시켜 개념으로 환원하기에 급급하다. 이로 인해 상징의 세계에 참여하는 자유로운 연상, 즉 상상력이 계발되거나 확장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한다.

문학교육이 감각적 경험 자체를 만들어주진 못하지만 적어도 상징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단군신화의 상징에 대한 우리 시대의 의미 작용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며,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단군신화가 사용되는 것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집단적 전망과 보편성을 제안할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단군신화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신화적 신성성의 쇠락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곰과 호랑이의 소망과 동굴 속에서의 시련, 단군을 낳은 곰의 성취 등은 서사적으로 잘 짜여 있어 수용자들의 관심 대상이었으며, 다종의 방식으로 자기와 연관을 짓는 매개적 내용이 되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방식의 수용은 단군신화를 더 이상 신화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신화는 전승자들이 신성하고 진실하다고 믿어야 성립할 수 있으며, 신화는 그것을 신성하다고 믿는 집단의 것이다.³⁷⁾ 그러므로 신성하다고 믿지 않으면 단군신화는 더 이상 신화가 되기 힘들다.

앞 절에서는 단군신화를 문화적 상징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보는 수용의 특성과 그 의미를 논했다면, 이 절에서는 단군신화의 초현실적 요소를 대하는 수용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앞 절에서 검토한 이야기적 흥미나 개인적 전유를 위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사전』, 대교출판, 1999, 481~482면.

해 단군신화를 대하는 사례들은 이미 초현실성이나 신성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12.6%에 달하는 수용자들이 신화에 대한 역사적 관심으로 단군신화를 대하면서 신화를 통한 역사적 사실과 고대 국가의 권력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국어교육에서 단군신화는 고대인의 생활상이나 사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다루어진다. 수용자들의 교육 경험이 집중된 7차 교육과정기를 기준으로 할 때, 18종 문학 교과서에 실린 단군신화는 주로 한국문학사와 관련된 단원의 첫머리에 놓여 있으며 반영론적 관점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주인공을 천상적 존재로 설정하는 등 국가의 건국을 정당화하는 기능”³⁸⁾을 하고 있는 대표적 건국신화라는 점에서 단군신화의 선정 취지를 밝힌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은 단군신화의 신성성이 주요한 교육 내용이 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역사학계나 역사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영대는 초경험적 요소가 다분한 단군신화가 그대로 역사일 수 없으며, 초자연적 존재가 문화와 제도에 개입한다고 생각한 고대인들의 사고 구조에 맞게 풀어낸 이야기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고대인의 논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화에 반영된 경험적 사실을 찾는 작업”³⁹⁾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신화를 역사적 코드로 변환하여 정치권력이 성립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경험적 사실들을 신화적으로 바꾸어 설명한 당대인의 사유 구조까지 파악하는 것이 역사학계의 주된 관심이며, 이는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단군신화 자체보다는 단군신화 속 역사 찾기에 대한 의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초경험적 신성성을 탈피한 대상으로 단군신화가 교육된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다. 조현설은 1905~1906년 이후의 교과서에서 더 이상 단군은 신인(神人)이 아니라 환인이라는 사람의 손자로서, 왕으로 갖추어야 할 성덕(聖德)이 있어 사람들에게 의해 추대되어 조선을 세운 훌륭한 인물이

38) 김충철 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지도서』, 디딤돌, 2002, 185면.

39) 서영대, 「단군 신화 속의 역사 찾기」,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생활사박물관(2)』, 2003, 74면.

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를 단군의 탈신화화·탈신성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이 시기 이후 단군과 고조선은 철저히 역사화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였다.⁴⁰⁾

고대 국가에서 단군신화는 집단의 성원들이 신성시 여기는 신화였을 것이며, 고려 시대 일연이 단군신화를 기록할 때에도 단군신화는 신령스러운 신화였다. 일연은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뭐 괴이할 게 있는가?”⁴¹⁾라고 하였다. 자신이 신성하다 믿는 이야기를 괴이하다 여기지 않고 기록했으니 일연에게 단군신화는 실로 신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에게 단군신화는 신성한 것이 아니라 분석과 비판의 대상일 뿐이다.

단군신화의 초경험적 세계에 대한 신이하고 신성한 느낌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문명, 독립, 민족국가의 표상으로서 단군이 재신화되었으며,⁴²⁾ 이렇게 ‘현대의 신화’⁴³⁾로 탈바꿈한 단군신화는 단군민족주의의 상징적 원천이 되었다. 그렇지만 앞서 논의한 대로, 다수의 현대 수용자들이 유구하고 신성한 민족적 기원을 상상하고 ‘자연스럽게’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며 ‘애국심’⁴⁴⁾을 강렬히 느끼게 할 만큼 단군민족주의의 힘이 막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군민족주의로 재신화되던 단군신화는

40) 조현설, 「근대개봉기 단군 신화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민족문화사연구(3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17면.

41)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三國遺事 奇異 第二.

42) 조현설, 앞의 글, 24면.

43) 바르트는 신화의 본질적 기능을 개념의 자연화라고 간파하였다. 바르트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이목을 끌지 않고 당연시 여기게 자연화하는 현대의 신화들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단군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는 바르트적인 의미에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롤랑 바르뜨,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술사, 1995, 48~50면 참조.)

44) 앤더슨은 애국심에는 언제나 상상의 요소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다. “그 남자 혹은 그 여자가 가지고 태어난 특정한 형태의 평범한 눈이 애인에게 뜻하는 것은 역사가 그 남자 혹은 그 여자의 모국어로 만든 어떤 언어가 애국자에게 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의 ‘언어’를 ‘단군신화’로 바꾸어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하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접하고 무덤에 가서야 헤어지는 그 언어를 통하여 과거가 복원되고, 동로익식이 상상되며, 미래가 꿈꾸어진다.”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사회비평사, 1991, 192면.

다시 탈신화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수용자들의 반응 양상이 보여주는 혼란스러움 역시 이러한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현대의 수용자들은 단군신화와 ‘나’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나의 합리적인 사고는 더 이상 초현실적인 단군신화의 신령스러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믿지 않는다. 현대의 관점에서 단군신화는 권력자들이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건국신화일 뿐이다. 그런 건국신화를 민족 단위로 확장하여 ‘단군의 자손’이라는 혈연적 동질성을 갖게 하는 것은 통치술의 일환이기에 나는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렇게 신화였던 단군신화가 탈신화화, 재신화화의 과정을 거쳐 다시 탈신화화되고 난 후, 수용자들은 단군신화를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여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징으로 삼기보다는 단지 역사적, 서사적으로 흥미로운 대상 정도로 여기는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곱과 호랑이의 시련에 관심을 갖는 수용자가 많았던 사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단군신화와 자기를 직접 관계 짓기보다는 자신의 수용 태도를 성찰하는 매개로 단군신화를 전유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고백은 탈신화화된 단군신화에 대한 공허감을 잘 보여준다.

- ① 조금 자란 나에게 찾아온 단군신화는 어릴 적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다시 내게 찾아온 단군신화는 여러 이데올로기가 겹들여져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 생활 등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의 단군신화는 새롭고 지적인 단군신화에게 마음껏 비웃음 당했다. 이제와 생각한다. 새롭게 찾아온 단군신화로부터 나는 얻은 것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잃은 것이 하나 있었다. 말로 형언할 수는 없지만, 허름한 책상 위에서 처음 접했던, 그저 이야기로서의, 그리고 하나의 감동으로서의 단군신화를 잃었던 것이다.[5-2-3]
- ② 언제부터인가 단군 신화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환웅은 치수와 농사, 그리고 국방력을 갖춘 외부 민족의 수장, 호랑이와 곰은 토착민의 토tem과 그 토착민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호랑이와 곰의 대결 끝에 승리한 곰 부족과 환웅 부족의 결합,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단군왕검이다. 어렸을 때 나를 채우던 꿈과 환상과 몽상

들이 썰물 빠지듯이 떠나간 자리다. 환상을 벗겨낸 자리는 마치 황량한 빈터의 낡은 그네 같다. 다시 돌아가 누우면 커다래진 내 몸뚱이만큼 뻗어 보인다. 낭만이 없다.[5-2-4]

단군신화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수용자들은 재미와 감동, 환상과 몽상 등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한다.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으로 정리해 버리고 나면, 단군신화는 감동이 없이 “뻗어” 보이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비록 소수가 자신의 수용 태도를 고백하고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단군신화 수용의 계통적 역사를 개체적 발전 과정에서 되풀이하듯 많은 수용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신화의 경이로움과 신성한 느낌을 잃어버렸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형적인 상징을 통해 무의식을 연구한 융도 신화가 현대인에게 더 이상 심리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되어버렸음을 지적한 바 있다.⁴⁵⁾

과학적 이해가 자라온 것과 더불어, 우리 세계는 비인간화되어왔다. 사람은 자신이 우주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제 자연과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현상과의 감정적인 ‘무의식적 동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이제 돌, 식물, 동물의 목소리가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으며, 사람도 그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사람과 자연의 접촉은 사라졌으며, 그와 함께 이런 상징적 관련을 제공하던 심오한 감정적 에너지도 사라졌다.⁴⁶⁾

이성적으로 볼 때 꿈이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사람으로 변신하며, 잠시 인간의 몸을 입은 신과 관계해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형적 상징을 합리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축소해 이해한다. 융은 이를 상징을 거부하는 것으로

45) 칼 구스타프 융, 앞의 책, 106면.

46) 칼 구스타프 융, 앞의 책, 106면.

보면서 어리석은 일이라 평하였다. 이 상징들은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며, 인간 사회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힘들이기 때문이다.⁴⁷⁾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현실적인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의 타래로 여기고 얽혀있는 실을 풀어내듯 원형적 형상을 헤쳐 내어 역사적 진실을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성의 성취이고 문명적 진보로 여길 수만은 없게 된다. “문명의 주요 진보는 그 진보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를 거의 파멸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회적 지혜의 첫 단계”⁴⁸⁾라는 통찰은 본능적이고 원형적인 체험이 녹아 있는 신화를 신화답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단군신화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촉구하고 있다.

IV. 결론 : 요약과 제언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현대 독자들이 단군신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그것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군신화와 나’라는 주제로 독자들이 쓴 64편의 자료를 분석하여 수용 양상을 펼쳐 보았다. 이 양상을 기술하면서 이 연구는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단군신화에 대한 관심이라는 향을 설정하고 그 하위 내용을 ‘단군신화와 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민족적 이념에 대한 관심 아래 ‘단군의 자손인 나’, ‘유서 깊은 민족의 성원인 나’,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나’ 등의 자료가 14.1%, 인격적 미덕에 대한 관심으로 ‘곰의 미덕을 배우려는 나’, ‘호랑이 같음을 반성하는 나’ 등이 26.5%, 신화에 대한 역사적 관심으로 ‘신화를 통해 역사를 아는 나’, ‘신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나’ 등이 12.5%, 신화에 대한 서사적 관심으로 ‘인물의 감정에 반응하는 나’가 6.3%, 개인적 전유에

47) 칼 구스타프 융, 앞의 책, 104~105면.

48)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앞의 책, 84면.

대한 관심으로 ‘경험 이해의 틀을 구하는 나’, ‘수용 태도를 성찰하는 나’,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는 나’가 28.1%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용 양상을 바탕으로 수용의 특징과 단군신화라는 상징을 매개로 의미 작용을 하는 주체인 현대 독자들의 정신적 삶을 기술하였다. 우선, 단군신화는 국가적인 상징 의례에도 활용되는 대표적 상징이자 개별자의 사회화를 도모하는 교육 이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이념에 대한 관심으로 단군신화를 대하는 수용자들이 적었다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는 단군신화와 같은 집단적 상징을 통해 단군민족주의라는 사회적 의미 작용을 도모하는 이데올로기의 위력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음을 말해 준다.

두 번째 특징은 독자들의 반응이 활발한 서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독자들은 꿈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내용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꿈, 호랑이 관련 내용이 풍부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 주지만, 수용자들은 신화가 만들어질 당시에 신화를 창조하고 전승하던 주체가 경험적 진실을 상징화했던 과정과 그 산물에 ‘신비한 참여’를 하지 못한 채, 현재의 자기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단군신화를 전유하였다. 연상을 통해 상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감각적 경험이 부족하며, 상징 텍스트에 대한 독해 방법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세 번째 특징으로 든 것은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단군신화의 수용 태도가 많다는 점이다. 단군은 신성성을 탈피하여 ‘탈신화화’되었으며, 민족의 기원인 ‘단군 할아버지’라는 역사적 존재가 됨으로써 ‘재신화화’되었다. 또한 합리주의적 사고로 그 신성성을 믿기보다는 분석의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군신화는 더 이상 신성한 신화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수용자들은 어린 시절 단군신화를 들으면서 느꼈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사라졌음을 고백하기도 하였다.

수용의 특징을 논한 장 각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구자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단군신화는 우리에게 소중한 상징이다. 민족의 기원에 대한 신화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성원들은 상상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적 상징의 의미는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정에 놓인 것이며 다양한 개별 주체의 상징 작용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징적 텍스트의 상징성을 체험하게 하는 문학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학교육은 상징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단군신화의 상징에 대한 의미 작용은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며, 특정한 목적으로 단군신화가 사용되는 것에 대항하면서도 새로운 전망과 보편적 원리를 제안할 수 있는 창조적 힘을 단군신화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과학주의, 합리주의에 쏠려 도도히 흘러가는 문명의 진보를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다. 풍부한 감정적 에너지를 전해주는 원형적 상징인 단군신화는 문명 자체를 보존하게 하며,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 초현실적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환원시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초현실적 믿음도 때때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문명적 진보의 첨단에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도 미신과 편견,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공포,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등을 지닌 고대인이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한다.

현대인들이 단군신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된 연구가 다소 멀리까지 간 느낌이다. 그러나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곧 텍스트와 자기의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한 자료에는 대상 텍스트만이 아니라 의미 작용의 주체도 표현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단군신화를 읽고 쓴 자료를 통해 민족적 상징을 매개로 의미 작용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었다.

단군신화가 민족적 상징으로 거듭나게 된 시점은 민족국가로서 근대국가가 성립하려는 시기였던 애국계몽기였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근대국가로서 통일된 민족의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다. 홉스본도 한국에 대해 종족과 정치적 충성이 연계될 수 있는 희귀한 종족 민족주의라고 지적할 만큼,⁴⁹⁾ 혈연 중심의 결속력이 높은 나라가 아직도 근대국가의 과업인

민족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은 역설적이다.

한편, 2002년부터 중국에서는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은 상징의 힘을 간파하고 그것을 활용하려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다. 이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실존적 선택’의 문제이며, 이는 단군신화와 같은 민족적 상징 텍스트와 개별자가 얼마나 풍부하고 심오한 의미 작용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어교육에서도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며, 교과서의 제재 내용이나 지향 가치가 통일과 관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공히 민족적 정진으로 여겨지는 단군신화는 통일 이후 교과서의 중요한 제재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남북한 사람들의 심성 깊숙한 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제재 그 자체보다는 교육 방법이다. 상징을 상징답게, 신화를 신화답게 교육하는 문학교육의 실천도 통일에 기여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9) 에릭 홉스봄,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4, 90~95면 참조.

* 본 논문은 2012. 2. 29. 투고되었으며, 2012. 3.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2. 4. 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일연, 김원중 역(2007), 『삼국유사』, 민음사.

김일권(1995), “단군론의 역사적 변천 연구—조선 중기~일제 시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논문, 1~142면.

김종철 외(2002),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지도서』, 디딤돌, 185면.

노태돈 편저(2000),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1~264면.

노태돈(1991), “해방 후 민족주의 사학론의 전개”, 『현대 한국 사학과 사관』, 일조각.

단군학회 편(2005), 『단군과 고조선 연구』, 지식산업사, 1~636면.

서영대(2001),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중교”, 『한국사연구(114)』, 한국사연구회, 217~264면.

서영대(2003), “단군 신화 속의 역사 찾기”,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생활사박물관(2)』, 74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1999), 『국어교육사전』, 대교출판, 481~482면.

설중환(2009), 『다시 읽는 단군신화』, 정신세계사, 1~293면.

손민수(1987), 『한국교육사(1)』, 문음사, 81~82면.

송호정(2004),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치럼, 1~327면.

신용하(1980), “신채호와 애국계몽사상(하)”, 『한국학보』, 110~111면.

안호상(2006), 『나라역사 육천년』, 한뿌리, 56~57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정연홍 역(1989), 『상징 작용—그 의미와 효과』, 서광사, 1~84면.

윤이흠 외(2001),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736면.

이구슬(1994), “전통과 비판—가다머와 하버마스의 해석학 논쟁”, 서울대 박사 논문, 1~173면.

이병수(2008), “문화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본 안호상과 박종홍의 철학”, 『시대와 철학(4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67~199면.

이형구 편(1995), 『단군과 단군조선』, 살림터, 1~405면.

정병욱·이어령(1977), 『고전의 바다』, 현암사, 12~25면.

정영훈(1995),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28-2)』, 한국정치학회, 33~56면.

조동일 외(2008),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1~557면.

조동일(2007),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406면.

조현설(2006), “근대계몽기 단군 신화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민족문화사연구(3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0~32면.

최남선(1973), “민속학상으로 보는 단군왕검”, 고대아세이문제연구소 편, 『육당 최남선 전집(2)』, 현암사, 331~342면.

최운식(1992), “단군신화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 『국어교육(79·80)』, 한국어교육학회, 376면.

황혜진(2007), “설화를 통한 자기 성찰의 사례 연구”, 『국어교육(122)』, 한국어교육학회, 561~589면.

롤랑 바르뜨, 정현 역(1995), 『신화론』, 현대미학사, 1~246면.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1991),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사회비평사, 1~228면.

에릭 홉스봄, 강명세 역(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263면.

조르주 장, 김형진 역(2010), 『기호의 언어』, 김형진 역, 시공사, 1~207면.

칼 구스타프 융 편, 정영목 역(1995), 『사람과 상징』, 까치, 1~440면.

<초록>

<단군신화>에 대한 현대 독자의 수용 양상과 특성

황혜진

본고에서는 현대 독자들이 단군신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그것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군신화와 나’라는 주제로 독자들이 쓴 64편의 자료를 분석하여 수용 양상을 펼쳐 보았다. 이 양상을 기술하면서 이 연구는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단군신화에 대한 관심이라는 향을 설정하고 그 하위 내용을 ‘단군신화와 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민족적 이념에 대한 관심 아래 ‘단군의 자손인 나’, ‘유서 깊은 민족의 일원인 나’,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나’ 등의 자료가 14.1%, 인격적 미덕에 대한 관심으로 ‘꿈의 미덕을 배우려는 나’, ‘호랑이 같음을 반성하는 나’ 등이 26.5%, 신화에 대한 역사적 관심으로 ‘신화를 통해 역사를 이는 나’, ‘신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나’ 등이 12.5%, 신화에 대한 서사적 관심으로 ‘인물의 감정에 반응하는 나’가 6.3%, 개인적 전유에 대한 관심으로 ‘경험 이해의 틀을 구하는 나’, ‘수용 태도를 성찰하는 나’,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는 나’가 28.1%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용 양상을 바탕으로 수용의 특징과 단군신화라는 상징을 매개로 의미 작용을 하는 주체인 현대 독자들의 정신적 삶을 기술하였다. 우선, 수용의 분포를 바탕으로 단군신화와 같은 집단적 상징을 통해 단군민족주의라는 사회적 의미 작용을 도모하는 이데올로기의 위력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독자들의 반응이 활발한 서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독자들은 꿈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내용에 흥미를 갖고 반응하였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 든 것은 단군신화에 대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수용 태도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단군신화는 우리에게 소중한 상징이다. 민족의 기원에 대한 신화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성원들은 상상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적 상징의 의미는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정에 놓인 것이며 다양한 개별 주체의 상징 작용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징적 텍스트의 상징성을 체험하게 하는 문학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학교육은 상징 세

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단군신화의 상징에 대한 의미 작용은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며, 특정한 목적으로 단군신화가 사용되는 것에 대항하면서도 새로운 전망과 보편적 원리를 제안할 수 있는 창조적 힘을 단군신화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단군, 단군신화, 단군신화 교육, 단군민족주의, 문화적 상징, 신화의 신성성, 통일 교육

<Abstract>

Receptive Aspects of Dangun Myth and Characteristics of Receptions

Hwang, Hye-jin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how to be accepted the Dangun myth for korean young readers and how to be made the relationship with the myth and themselves by surveying the 64 texts of the topic, 'Dangun myth and I'.

main interests	relationship of myth and I	count	%
1) national ideology	① I'm a descendant of Dangun	3	14.1
	② I'm one of distinguished ethnic group	2	
	③ I have national ideology such as 'beneficial for human[弘益人間]'	4	
2) personal virtues	① I learn the virtues of the bear	7	26.5
	② I regret to behave like the tiger	10	
3) history about the myth	① I learn the history by the myth	4	12.6
	② I analyze the myth critically	4	
4) narrative of the myth	① I feel the character's feelings	4	6.3
5) personal appropriation	① I find the frame for understanding of my experience	11	28.2
	② I reflect the attitude of acceptance	4	
	③ I utilize the myth for my storytelling	3	
6) etc.	foreigners and disposables	8	12.5

I described of mental lives of modern korean young readers by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receptions of Dangun myth. First of all, I pointed out that the power of national ideology for young readers was decreased rather than past generation. Second, I found that young readers had

interested in the narrative of bear and tiger. Third, the sacredness of the myth decayed with the reasonable and critical attitude.

【Key words】 Dangun, Dangun Myth, Education of Dangun Myth, Dangun-nationalism, Cultural Symbol, Sacredness of Myth, Education of Unification